

대학 채플의 모형 갱신과 재형성

안 성 근*

I. 서론: 대학 채플 갱신의 필요성

기독교 대학에 있어서 신앙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핵심적이면서 보편적인 방법이 채플이다. 신자인 학생들에게는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예배 형식을 통해 신앙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해주고, 비신자인 학생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해주려는 것이 대학 채플이 해온 역할이다. 그러나 이런 의도와는 반대로 기존 신자 학생들에게는 채플이 너무 세속적이며, 영적이지 않다는 비난을 받고, 비신자 학생들에게는 지루한 예배를 통해 신앙을 강요한다는 이중의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이 오늘의 채플이 안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채플이 현대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호흡하고 있는 현대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채플의 회중인 대학생들의 의식, 사고, 정서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요인 외에 오늘날의 여러 사회 문화적 현상들이 채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을 요구하며 갱신의 필요성을 부추기고 있다.

첫째는 기독교 대학의 다종교적 상황이다. 이는 기독교 대학 안에 기독교 신앙인 외에 상당수의 타종교 신앙인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의미한다. 대학 전체 구성원의 신앙이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상황과 타종교인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대학 채플 운영은 그 의미와 방향이 달라진다. 대학 공동체의 다종교적 상황에서는 타종교인을 향한 새로운 선교 개념과 선교 방식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타종교를 부정하고 그들의 개종을 쫓점으로 하는 일방적인 회심지향적 방식으로는 타종교 공포증(Theophobia)이라는 결과만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다종교적 상황 속에서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재고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둘째는 채플 회중들의 변화이다. 채플의 회중은 현시대의 대학생들로서 이들의 문화와 사고 방식은 근대 이후적(postmodern)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방식으로 채플이 접근

* 본교 인문대학 교목실 연구원

되어야 한다. 요즘 대학생들은 신세대, X세대로 호칭되면서 과거 대학생들과는 그 사고방식과 삶의 양식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낸다. 그들은 지성보다는 감성에 민감한 세대들이고, 듣는 세대이기 보다는 시각적으로 보는 세대이며, 고도의 문화, 예술 장비에 익숙해져있는 세대들이다.¹⁾ 따라서 채플의 회중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례는 채플의 의미 규정에 대한 이해이다. 채플은 종교예식인 예배인가, 아니면 신앙 교육을 위한 신앙 강의인가? 채플이 대학 교과 과정에 명시되어 있고, 대학생들이 채플을 본성적으로 거부한다는 이유로 점차로 예배 의식들이 축소되고 신앙강의 형식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 또한 예배를 신자들의 구원의 축제로 정의할 때, '불신자와 타종교인들이 함께 하는 대학 채플을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과 채플을 선교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를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대학 채플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특히 예배와 선교와의 관련성 연구가 필요하게 됐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같은 채플 갱신의 필요성에 역점을 두면서 기독교 대학의 채플 운영에 있어서 파라다임의 변화와 채플 형식의 재구성을 모색하려 한다.

II. 다종교 상황에서의 신앙교육

다원주의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 사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이 다원주의를 축하하든, 비난하든간에 우리는 다원주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한 다원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 깊이 있게 하고, 타인의 신앙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들의 삶을 보다 더 충실하게 살도록 도와줄 목회적, 교육적 사역이 필요하다.

다종교 상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다원주의(pluralism)"라는 개념과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다원적(plural)' 또는 '다원성(plurality)'이라는 개념은 현실적으로 다수의 종교가 한 사회 안에 공존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서술을 의미한다. 이 개념 속에는 다른 종교들에 대해 한 종교가 가지는 입장이나 태도가 나타나 있지 않다. 반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개념은 한 종교가 타종교에 대해 가지는 일정한 입장이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 가지는 독특한 입장을 의미한다. 종교다원주의는 전통적으로 타종교에 대해 취하는 세가지 입장 중에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1) Andres Tapla, "Post-Christian Generation", <Christianity Today> 1994년 12월호, 18-23; Wendy Murray Zoba, "The Class of '00", <Christianity Today> 1997년 3월호, 18-28을 보라.

1. 타종교를 향한 3 가지 입장 : 배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

다종교 상황은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된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전통적으로 타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 입장은 1983년에 정리된 레이스(Alan Race)의 분류 방식을 따르고 있다.²⁾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배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로 분류했다.

(1) 배타주의

배타주의(exclusivism)는 기독교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라는 구절들이 배타주의의 전형적인 성서적 근거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인 진리를 스스로 계시해 보여 주신 계시의 종교인 반면 타종교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참된 실체를 알려고 노력한 불신 양적 종교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와 타종교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qualitative difference)가 존재하고, 기독교 이외에는 계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참된 종교”이고, 다른 종교는 “거짓 종교”라는 결론이 나게 된다.³⁾ 또한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만 있다고 단언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종교이고 이런 의미에서 참된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과 대립하게 된다. 전통적인 가톨릭과,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이 이 입장을 따르고 있다.

(2) 포괄주의

포괄주의(inclusivism)는 카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제출된 칼 라너(Karl Rahner)의 ‘익명의 그리스도인’(theory of anonymous Christianity)이 취하는 입장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종교들 속에도 나타나 있거나, 잠재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타종교인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지만, 타종교에 계시된 진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중국에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칼 라너는 기독교와 타종교 사이에 어떤 공통기반이 있다고 믿으며,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효과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구원의지⁴⁾”라고도

2) Alan Race, *Christian and Religious Pluralism: Patterns in the Christian Theology of Religions*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2).

3) 한인철, “종교전통간의 대화:유형론적 접근” <세계의 신학> 제17호, (세계신학 연구원, 1992, 겨울), 47.

4) Karl Rahner,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78), 147.

하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선천적인 방향지위집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모든 종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지워져 있다는 면에서 질적으로는 같다. 그러나 각 종교들이 서로 다른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와 신앙이 각기 다른 정도로 각각의 종교 안에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계시와 신앙이 가장 명확하고, 완전하게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라나는 기독교를 "절대적 종교"라고 본다. 따라서 기독교는 타종교 속에 있는 "익명적인 신앙"을 "명시적인 신앙"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고 결론 짓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가톨릭과 개신교 개혁주의자들이 이 입장을 취한다.

(3) 다원주의

다원주의(pluralism)는 참 종교를 하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각 종교들은 그 자체로써 유일무이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종교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되고 절대적일 수 있다. 각 종교들이 서로 만나 대화를 갖는 이유는 상호풍요(mutual enrichment), 상호성숙(mutual fecundation), 상호변혁(mutual transformation)에 있다. 다원주의자들이 바라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 하나의 동일한 세계 종교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 종교들이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성숙되어가되, 자기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이 없이 상호간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다.⁵⁾ 스미스(Cantwell Smith), 존 히크(John Hick), 파니카(Panikkar)등이 이 입장을 지지한다.⁶⁾

2. 타종교 공포증(Theophobia)을 넘어

기독교 대학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기초로 세워진 대학인 관계로 다원주의적 입장을 취할 수는 없지만, 대학 캠퍼스가 이미 다종교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식할 필요는 있다. 이미 기독교 대학은 다종교 상황에 처해 있다. 대학 입학시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60%를 넘어서고 있다.⁷⁾ 이런 상황 하에서 타종교 학생들을 향한 전통적인 배타주의적인 선교 방식을 취할 때 학생들은 방어적인 자세로 그리스도를 대하게 된다. 배타주의가 취하는

5) 한인철, "종교전통간의 대화" <세계의 신학> 제17호 (세계신학 연구원, 1992, 겨울), 63.

6) 홍정수, "다종교 상황에서의 예수의 유일성," <종교신학연구> 제5집 (서강대학교 종교신학연구소, 1992), 172.

7) 본 대학의 경우 1996년 현재 타종교인의 수는 2학년이 54%, 3학년이 56%, 4학년이 65%으로 평균 58.4%로 나타났고(한원수 교수의 학생 종교 분포도 참조), 한신대의 경우 1991년 자료에 의하면 1학년이 49%, 2학년이 54%, 3학년이 43%로 평균 51%로 나타났다(강영선, "채플과 기독교교양과목의 현황과 과제", <신학연구> 33호 (한신대학교 신학부, 1992), 38-39).

선교 형태는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대한 일방적인 선포와 제국주의적인 선교 태도와 참 진리를 소유한 계시의 종교로서 타종교를 비하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 포괄주의적 선교형태는 타종교를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어느 정도 타종교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일방적인 선포 형식보다는 대화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타종교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진리가 종국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 진리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원주에서 취하는 선교형태는 '상호 성장', '상호 풍요'를 위한 철저한 대화의 형식을 취한다. 이 대화에서는 타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건너감'이 있는 후에, 다시 자신의 종교로 '되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하다.⁸⁾ 여기에는 어느 누구의 개종도 있을 수 없다.

채플을 행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구원의 사건이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도록 함에 있다. 그러나 채플을 운영하는 방식과 그 사상적 배경에 타종교 학생들을 향한 비하적, 공격적, 배타적, 일방적인 면이 있다면, 복음의 효과는 절감된다. 채플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무시당하고, 열등하다고 취급당하고, 자신은 개종되어야 할 사람으로 인식되는 압력적인 분위기를 느낀다면, 학생들은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보통 종교인들에게는 타종교 공포증(Theophobia)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타종교가 자신에 대해 행할 그 어떤 것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폐쇄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는 대학 채플에서도 역시 발생하고 특히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채플은 학생들이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적절하고도 정확한 지식을 터득하도록 돕고, 상이한 신앙체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타종교권에 속한 사람들과 만나고 친숙해짐에 따라 개방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일을 교육하고, 종교신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자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정신을 가르치고, 타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도록 돕고, 신앙적 차이가 더 없는 학습의 기회로 인식하고 타인으로부터 솔선하여 배우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⁹⁾

채플에서는 배타적인 접근 방식에서 포괄주의적인 방식으로 그 접근 방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타종교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인정, 포용하면서 완성된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하는 방식, 자신들의 신앙과 인격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8) John B. Cobb, *Beyond Dialogue* (Fortress Press, 1982), 109-158.

9) Peter T.M.Ng "Toward A New Agenda for Religious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정웅섭, "다문화 사회에서의 종교교육과 교육목회", <신학연구> 37호 (한신대학교 신학부, 1996), 211-212에서 재인용.

필요하다. 따라서 채플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타종교인들을 포용하는 관용성이 동시에 필요하다. 개종 중심적인 분위기로 목청껏 진리를 외치는 일방적인 선포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과 폐쇄적인 반응은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한 대화 단절의 상황을 보여 주고, 큰 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지 못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느낌을 준다. 따라서 종교 다원적 상황 하에서의 채플은 서로를 인정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그 기저에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열린 예배로서의 채플

1. 비신자에 민감한 예배

요즘 구도자 예배(Seeker's Service) 또는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 (Seeker Sensitive Service)라는 새로운 유형의 예배 형식이 구미에서 실행되어지고 있다.¹⁰⁾

이 예배는 그 이름이 나타내 주고 있듯이, 비그리스도인들을 진리를 찾는 구도자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 예배의 의도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 익숙지 않은 비신자들이 좀더 쉽게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것이다.¹¹⁾ 복음에 낯선 사람, 복음을 알려는 사람,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과 배려를 하는 예배이다.¹²⁾

교회의 예배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것이고, 예배의 노래, 옷입는 것, 사용하는 용어들, 제기되는 주제들, 장소의 분위기들 역시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게 해준다. 따라서 교회에 낯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쉬운 자리를 만들어 주어 복음을 듣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폐쇄적인 예배보다는 열린 예배라고도 부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향한 예배라고도 부른다.

구도자 예배 또는 열린 예배를 실현가능케 하는 신학적 기초는 복음 전파의 상황화, 성육신화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 특히 히브리인들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10) 구도자 예배와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자는 전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지향해서 기획된 예배인 반면, 후자는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참여했을 경우를 감안해서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들을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예배를 구성하는 것이다.

11) 김만형, "구도자 예배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1997년 4월호, 43.

12) 권준, "구도자 예배의 기본원칙을 배워라", 위의 책, 73.

때문에 성서의 의미를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선지자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청중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했다.¹³⁾ 청중들이 익숙해져 있는 문화적 요인들-언어, 개념, 표현방법, 수사학, 관습, 속담- 을 사용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중 하나인 메시지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는 것파도 일치한다. 전하는 사람이 전하기 쉬운 방법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달의 상황화요, 성육신이다. 따라서 예배에도 이 성육신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언어, 관습, 몸짓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예배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 구도자 예배가 갖는 특징들을 김만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⁴⁾

1. 사회적적 조사를 통해 예배의 청중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한다.
2. 예배를 기획한다.
3. 예배 중에 기쁨, 환희, 축하의 요소가 있다.
4. 음악선택을 신중하게 한다.
5. 말씀을 접근해 나가는데 다양한 접근 방법 - 드라마나, 비디오, 무용 - 을 모색한다.
6. 복음 메시지가 강하다.
7. 전체적인 분위기가 따뜻하다.
8.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기대감을 갖도록 한다.
9.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향상의 노력을 한다.

2. 선교적인 대학 채플

대학 채플은 근본적으로 예배는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축제"이며, 하나님의 구원행위에 대한 신앙적 고백행위이기 때문이다.¹⁵⁾ 즉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때와 장소이고, 따라서 예배의 참여자는 하나님, 신자, 천사, 세상이 된다.¹⁶⁾ 예배는 신자의 행위이지 비신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신자와 비신자가 혼합되어 있는 대학 채플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대학 채플에는 선교적 목표가 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타종교인과 비신자들이

13) 문동학, "열린예배의 신학적 이해와 영상", <목회와 신학> 1997년 4월호, 52.

14) 김만형, 위의 글, 43-46.

15) Jean- Jacques von Allmen, 구원의 축제, 박근원 역, (서울: 진흥출판사, 1993), 48.

16) 위의 책 262-289.

대학 채플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채플의 선교적 의도이다. 따라서 선교전략에 있어서 비신자들을 도외시한 전통적인 교회 예배형식의 채플로는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채플 안에서 소외당하고, 이방인처럼 느끼게 되어 결국 수동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비신자들을 선교하기 위한 채플이라면, 비신자들에게 민감하고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로써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 채플은 구도자 예배 또는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의 형식을 띠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 따뜻하고 수용적인 분위기

먼저 전체적인 채플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편안하며 초청적인 느낌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스하면서도 초청하는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교회와 복음에 대한 불신자들의 문화적, 감정적인 벽을 허물 수 있다. 공간은 가능한 따뜻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조명을 사용하고, 실내장식도 아늑한 장소가 되도록 설치한다.

- 현대적인 음악 사용

신세대들에게 있어서 음악 사용은 중요하다. 그들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을 여는 구세대들과는 달리 정서를 공유하고, 감정으로 충격을 준 후 머리로 이해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이다. 음악 사용은 현대적이면서 경쾌한 음악이 필요하고, 최상의 음악을 사용함이 필요하다. 음악은 구도자 예배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부분 경쾌하고 빠른 템포의 현대 감각의 음악을 사용한다. 피아노, 키보드, 드럼, 기타, 현악기, 나팔 등으로 구성된 5-6인의 밴드가 음악을 반주하고, 이 팀들이 아주 신나는 예배, 축제적인 예배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한다. 이 음악을 통해 세속음악이 주지 못하는 거룩성, 거룩함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임재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함께 부르는 찬송은 현대 감각의 음악으로 구도자들의 문화적 감각에 맞는 찬송을 사용하며, 가사의 내용도 되도록이면 신학적이거나 교회적인 난해한 단어들을 피하고 쉬운 언어로 비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특송 또는 마지막 찬송은 공연 형태의 찬송으로 설교 또는 주제와 관련된 가사의 곡을 선택한다. 성가는 전통적인 성가대의 찬송보다는 잘 훈련된 몇 사람의 감동적인 중창과 뒤에서 백코라스를 할 수 있는 몇명의 사람으로 한다.

- 촛점이 있는 예배 구성

각 채플은 한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어떤 한 사상이나 주제에 촛점을 맞추어 구성하면 채플에 결집력과 목적이 생기게 된다. 그 주제를 강조할 때 학생들은 일관된 내용에 의해

여러 순서 중에서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 그 주제에 맞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메시지에 맞는 합창, 독창, 특송, 드라마 등을 한다.

-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

말씀 선포는 각 채플의 주제에 적합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좋은데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메시지를 설교한다.¹⁷⁾ 일반적으로 청중들이 설교를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실생활과 관련없는 것이 들려 질 때이다. 요즘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은 대인관계, 자아상, 가정, 졸업후 진로, 데이트와 결혼, 전공, 소외된 이웃, 대중 문화, 아르바이트 등이다.¹⁸⁾ 따라서 채플에서는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지를 통해 학생과의 간격을 좁혀 나아가야 한다. 채플에서 주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주제들은 먼저 영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천국과 지옥,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도란 무엇인가? 악의 문제, 영적 성숙 등이다. 두번째 정신적 영역으로는 불안, 공포, 외로움, 스트레스, 자존감, 분노, 자기절제, 슬픔, 고통, 진정한 기쁨, 경쟁, 성공 등이다. 세번째 도덕적 영역으로는 섹스, 혼전 성관계, 동성애, 이혼, 알콜중독, 돈, 재정관리, 소비의식 등이다. 네번째로는 육체적 영역으로 질병, 죽음, 마약, 오락, 여가, 시간관리, 건강관리, 남자란, 여자란 무엇인가? 술, 담배 등이다. 다섯번째는 사회적 영역으로 가정, 갈등, 사회정의, 지역감정, 인간관계, 불우이웃, 통일 등이다.

- 채플 인도자의 변화

무엇보다도 채플의 변화는 채플 인도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비신자 학생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그들의 삶의 변화를 진정으로 바라는 복음의 열정과 함께 현대 문화에 대한 뛰어난 감각이 요구된다. 복음과 현대 문화와의 창조적인 결합을 추구하는 신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열려있는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는 영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현대 문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혜안이 있을 때 대학 채플은 현대적인 사람들에게, 현대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17) 멀티미디어 시대의 설교에 대해서는 최인식, *미래사회와 미래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96); Pierre Babin, *Medias Et Foi <느끼는 시대, 오늘>* 이화숙 역 (성바오로출판사, 1993)을 보라.

18) 10대 이슈를 설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학원복음화* 29호, 1996, 49-50.

VI. 맺는말

신앙과 학문을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통합하려고 한 것이 기독교 대학이다. 여기에는 신앙과 종교를 강요하다시피한 편협한 "종교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고 우수한 "지성", "과학" 등을 포용하면서 사회와 역사를 변혁하고 창조하는 신앙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¹⁹⁾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대학이 거대화되고, 세속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자체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²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이 우선시되고 있고, 또한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채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독교대학 내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과 신앙 교육의 강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 채플의 운영은 기독교 대학의 종교 다원적인 상황, 학생들의 변화, 채플의 존재규명 문제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실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의 위기라는 현실성 속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숙고와 개선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대학 채플의 운영이다.

19) 은준관, 기독교 교육 현장론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8), 321.

20) 이숙중, "한국의 기독교대학의 문제점과 신학교육의 과제" <신학논단> 제22집(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994) 257.